

## 병아리 주문 쇄도 (Rush)

김 종 성

<월간양계 편집부 기자>

부화장의 병아리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7월 까지만 하더라도 부화장은 병아리 판매에 고전을 면치 못했고 지난달 월간양계 8월호 특집에서도 다루어 졌듯이 병아리는 적정가격 수준 이하에서 판매되어 여러 부화업자들은 회합을 갖고 8월부터 산란계 1수당 130원, 9월부터는 150원을 받기로 결의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결의가 있는 후 한달이 못되어 산란계 병아리 1수당 150원에 무난히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도 큰 부화장들이 11월까지 모두 예약이 되어 있어 마치 병아리 러시(rush)를 맞은 느낌이다. 요즘 대형부화장의 부화기는 풀(Full) 가동되고 있다. 몇달동안이긴 하나 부화장들의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면 양계업자가 이러한 일련의 병아리 육추를 예년에 비해 앞당겨서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조기육추의 가장 큰 요인은 연탄부족을 예상해서 병아리를 예년보다 빨리 육추하려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 같다. 지난 7월 政府가 무연탄의 생산부족과 연탄수요의 격증으로 연탄의 구매 카드제를 실시 함으로써 육추를 하려는 양계가는 연탄 수요량의 부족으로 당황하게 되었다. 다행히 대한양계협회는 판매기관인 농수산부, 상공부, 서울시등 판매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여 양계가들에 연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 받았으며 양계가는 그 소요량을 도지사에게 의뢰해서 소요량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겨울철이 다가오면 연탄수요량이 모자를 것이라는 한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보면 양계가가 필요로 하는 연탄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또 이유를 들 수 있다면 내년 경기를 예상하여 조기 육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사료가격의 인상, 뉴캐슬의 만연,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닭 숫자의 감소로 울들어 난가는 그런대로 괜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난가의 상승이 기대되어 아무리 소비가 위축됐다 하더라도 대란 20원까지는 무난히 받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울들어 호조를 보인 난가로 양계업자는 자금사정이 호전되었고 작년도 많은 닭 숫자의 도래로 鷄舍가 비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육추를 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때 너도나도 조기 육추를 위해 병아리 예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월간양계 취재부에서 몇몇 부화장과 전화연락을 통해서 또는 현지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조사한 바로는 서울, 경기지방의 대규모 부화장이 8월말 부터 예약이 넘쳐 10월 말까지 병아리 예약이되어 있다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병아리의 주문 쇄도(rush)가 내년도에 다시 생산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앞으로를 전망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양계업계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경기변동을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 이래 쓰라렸던 양계경기의 변동은 양계경기 침체에 따른 시련이 너무나 컸음이 생생하며 아직까지도 그 상흔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병아리 주문이 내년도의 양계산물의 과잉을 초래하여 그 產物價格을 下落시킬 우려를 표명하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C부회장의 K씨는 그러한 경기불안의 예상은 울들어 전반기까지의 산란계초생추 수수가 작년도 보다 50%이상의 감소를 보였고 수입산란계가 7월에 45만수 8월에 70만수가 예약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초생추 출하는 작년 동기간과 같은 수준이며 이러한 양계수수의 증가가 産物價格을 低下시킬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작년도 양계가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계를 도태했다. 이렇게 되자 사실상 최근에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종계가 모자라 증분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과 같은 병아리 공급부족 현상은 내년도 3~4월경에 다시오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분도 있다. 확실히 종계보유 숫자의 부족은 현재와 같은 병아리 러시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불량추를 판매한다고 하면 결국 부회장의 신용도는 물론 양계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회장은 이런 때일 수록 品質 좋은 병아리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태규모 부회장은 이러한 병아리 주문이 쇠도하자 모용도에 쓰기 위해 무감별추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숫병아리를 많이 섞어 판매함으로써 빈축을 산일이 있다. 이러한 때일 수록 좀더 신용있게 병아리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회장의 신용도에 앞서 우리나라 양계업체에 안정된 風土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많이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앞서 자기의 병아리가, 정말로 양계가의 수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판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계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병아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몇몇이 판매할 수 있을 때 양계가가 안심하고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가 다시 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ton당 149\$하던 옥수수 가격이 며칠사이 191\$로 뛰었다. 도입원료를 이용한 배합사료를 쓰고 있는 우리 양계인은 이러한 국제곡물가의 상승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궁극적인 사료대책을 강구하지 않

으면 안될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곡물 가격이 오르면 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선 사료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 작년도에도 사료가격은 무려 3차례에 걸쳐 80.5%나 상승했다. 그나마 사료의 質은 떨어져 양축가는 二重의 곤욕을 겪었다. 그러나 다시 사료가격에 암운이 깔린 이때 양계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自省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와같이 국제곡물가격이 치솟을 경우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양계산물이 사료가격이 인상된 비율만큼 높게 판매되어야 함은 사실인데 이제까지 사료값 인상에 따른 난가나 육계가격이 사료값의 인상을 커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양계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현재의 초생추 출하수수가 작년 동기간과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또 이때까지의 출하수가 작년보다 많은 감소를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산물가격의 적정화가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産物價格이 오르면 소비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畜産物과 같은 식품은 가격이 높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가격과 같은 적정가격이하로 판매될 때 축산의 경영은 점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단백질 공급원인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농후사료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무모한 사양수수를 사육하여 방매하여야 하는 눈물겨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하겠다. 현재의 병아리 주문이 각 부회장마다 쇠도하고 있고 이러한 많은 수의 출하가 내년도 생산과잉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만 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양계가는 좀더 심사숙고 하여 육추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제반 경기 동향을 면밀히 살핀 다음 앞으로의 생산시기, 규모 등의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